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2년 2월

교육학석사(역사교육)학위논문

1920년대 식민지 교육정책과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학교 경험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김 주 연

1920년대 식민지 교육정책과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학교 경험

Colonial Education Policy in the 1920s and School
Experiences of Gwangju Secondary School Students

2022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김 주 연

1920년대 식민지 교육정책과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학교 경험

지도교수 이 정 선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역사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김 주 연

김주연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성 한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정 선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손 성 필 (인)

2021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차>

ABSTRACT..... iii

제1장 머리말..... 1

제2장 1920년대 식민지 교육정책과 중등교육의 위상...5

제3장 광주고보 학생들의 근대교육에 대한 기대.....13

 제1절 광주지역의 중등교육 기관 확충.....13

 제2절 광주고보의 권위적 학교 운영과 학생들의 개선 요구...17

제4장 광주고보 학생들의 식민교육에 대한 반발.....24

 제1절 광주지역의 사회운동과 학교 밖 학습.....24

 제2절 광주학생운동의 발발과 전국적 연대.....29

제5장 맺음말.....33

참고문헌.....36

<표 목차>

표 1 제1·2차 조선교육령 1조~3조 비교.....5
표 2 제1·2차 조선교육령 중 보통학교에 관한 규정.....7
표 3 제1·2차 조선교육령 중 고등보통학교에 관한 규정.....8
표 4 제1·2차 조선교육령 중 여자고등보통학교에 관한 규정.....9
표 5 고등보통학교 교과과정 및 수업시수.....10
표 6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학교 수 비교.....11

ABSTRACT

Colonial Education Policy in the 1920s and School Experiences of Gwangju Secondary School Students

Kim Joo Yeon

Advisor : Prof. Lee Jung Sun

Major in Histo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Secondary school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were a space in which the expectations and collision between Korean students and the Occupying Japanese Imperialists manifested themselves. The results of education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degree of expectations of the Occupying Japanese Imperialists and Korean students being met. The colonial education did not turn out to be what the Japanese Imperialists wanted, because the attitude of Korean student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lassrooms.

During the 1920s, the 2nd Joseon Education Ordinance extended the limits of school education. As a result, Koreans were allowed to prepare themselves with the education needed to access higher-level education. Especially, the addition of the provision o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urned the secondary elementary school now functioned as a humanities intermediate school. However, the access for Korean students to humanities intermediate education was limite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intermediate school students were expected by the society for higher achievements and they considered themselves as elites.

Jeonnam was one of the regions where the desire for education was strong. Gwangju, the capital of Jeonnam Province, was especially well-positioned to accommodate schools. With the establishment of Gwangju Secondary School, talents from all over the country gathered in

Gwangju to access humanities intermediate education. The students of Gwangju Secondary School had to compete with the students of Gwangju Intermediate School, who were Japanese nationals for access to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ese students also clashed with each other as the ruling nation and the subjects of their rule. Students expected access to modern knowledge and educational credentials. However, many situations they experienced betrayed such expectations. Especially, the authoritarian and counter-educational behaviors of the principal and teachers were found dissatisfying by many students. Students expressed their frustration and demanded improvement, but the school deceived or punished the students who stood up against them, which brewed even further complaints. As the expectations of the students were denied, they became less interested in classes. And their encounter with socialism was a very special experience. The discrimination they had to face in their everyday lives also made face the reality of an occupied nation. The frustration of the students erupted in Gwangju Student Movement, which spread over to the entire country.

제1장 머리말

학교는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목표에 맞추어 교육하는 공간이다. 학교 교육의 목표를 제시하는 주체는 국가이다. 국가는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국가가 원하는 인재의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학교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에 일정한 통제를 가하며 학생들의 자유로운 학습활동을 제한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소수의 세력이 국가권력을 독점하거나, 특정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는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¹⁾ 그런데 학교 교육의 결과가 국가가 의도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의도가 무엇이든 학교 교육의 대상자인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고자 하는데, 그것은 지적 욕구의 충족과 학력 획득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도가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지만, 교육의 결과는 학생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기대의 충족과 만족도에 따라서 결정된다.²⁾ 즉 학교 교육에 대한 국가의 목표와 학생들의 목표가 일치한다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겠지만, 서로의 목표가 일치하지 않고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경우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한국 교육의 역사에서 학교에 대한 기대와 충돌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시기는 일제 식민지 시기였다. 이는 식민지 시기 학교 교육을 둘러싸고 일제 당국의 입장과 조선인의 입장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었기 때문이다. 일제 당국의 입장에서 학교 교육은 식민지 유지에 필요한 수단이었으며, 교육을 통해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없애고 식민지배에 순종하는 인간을 만들고자 하였다.³⁾ 조선인 학생들에게 학교는 신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으며, 근대 직종 취업에 필요한 학력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학교 교육이 필요하였다.⁴⁾ 식민지 시기 학교 교육의 모습은 이러한 서로의 입장이 반영되어 나타났으며, 교육의 결과는 서로의 기대가 어느 정도로 부합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었다.

식민지 시기 학교 교육에 관한 초기의 연구는 일제 당국의 의도와 식민교육의

1) 김신일,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2015, 111쪽~149쪽
 2) 오욱환, 『한국사회의 교육열 : 기원과 심화』, 교육과학사, 2000, 216쪽
 3) 이만규, 『(다시읽는)조선 교육사』, 살림터, 2010, 504쪽
 4) 오성철, 『식민지 초등 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 404쪽

성격을 밝히는 데 집중되어, 일제 당국의 일방적인 동화교육과 억압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었다.⁵⁾ 그런데 오성철의 연구에서 식민지 시기 교육을 일제 당국과 조선인 사이 상호관계 속에서 바라보면서, 이후 식민지 시기 교육 현장에서 조선인들의 태도와 반응을 중요하게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오성철은 1920~1930년대 보통학교 양적팽창의 원동력을 조선인의 적극적인 ‘향학열(向學熱)’로 보면서 조선인의 능동적인 태도를 강조하였다.⁶⁾ 오성철의 연구로 식민지 시기 교육에 일제 당국의 의도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식민지 시기 교육을 확장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듯 식민지 시기 교육정책은 일제 당국이 설정한 목표에 따라서 실시되었지만, 그 결과가 반드시 일제 당국이 의도한 대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조선인 학생들의 태도와 반응이 중요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식민지 시기 일제 당국과 조선인 학생의 상호작용이 잘 드러나는 공간은 특히 중등학교였다. 1920년대 조선교육령이 개정되면서 중등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가 더욱 커졌다. 그런데 중등학교는 협력자를 획득하려는 일제의 목적과 학력 획득을 통한 계층 상승이라는 조선인 학생의 목적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큰 공간이기도 했다. 조선인 학생들을 둘러싼 교육환경과 그에 따른 충돌 과정에서 항일(抗日)의 측면을 강조한 연구들은 학생들이 피지배 민족의 처지에서 경험하는 민족적인 차별과 울분을 강조하고,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항일운동의 수단으로 보면서 학생들의 민족의식에 기반한 독립운동의 과정으로 보았다.⁷⁾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불만을 느끼는 순간과 충돌하게 되는 원인을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박철희의 연구가 주목된다. 그는 식민지 시기 중등교육에 관한 연구로 고등보통학교에 주목하였다. 특히 중등교육에 대한 일제 당국의 정책변화로 조선인 학생들에게 기회가 열렸으며, 중등 학생들의 지적 수준의 정도

5) 이만규, 『(다시 읽는) 조선교육사』, 살림터, 2010 ; 홍문중, 『조선에서의 일본 식민지 교육 정책 1910~1945』, 학지사, 2003 ; 강명숙, 「제1차 조선교육령 제정과정 연구」, 『한국교육사학』, 한국교육사학회, 2007 ; 강명숙, 「일제시대 제2차 조선교육령 개정과정 연구」, 『교육사상연구』,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09 등
 6) 오성철, 『식민지 초등 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
 7) 김호일, 『한국근대 학생운동사』, 선인, 2005 ; 박찬승 등, 『광주학생독립운동과 나주』, 경인문화사, 2001 ; 장규식, 『1920년대 학생운동』, 한국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2009 등 ; 김기주, 「광주학생운동 이전 동맹휴학의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와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 있는 학생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하였을 때 학생들은 학교에 저항하게 되고, 결국 식민지 당국과 충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⁸⁾

1920년대 조선인 학생들의 불만이 쌓이고 결국 기대가 좌절되면서 광주학생운동으로 폭발하였다. 광주학생운동에 관한 김성민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던 배경 중 하나로 사회주의 청년단체와의 관계와 독서회 활동에 주목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시위 운동이 전국적으로 공감을 얻으면서 확산되는 과정을 다루어 의미가 있다.⁹⁾ 류시현은 광주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집단적 감성’에 주목하였다. ‘나주역 사건’이라는 우발적인 충돌로 사건이 시작되었지만, 조선인 학생이 입은 피해와 ‘식민지 교육철폐’라는 요구 조건이 전국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였으며 당시 조선인 언론이 집단 연대의 촉매제 역할을 담당하였음에 주목하였다.¹⁰⁾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학교 밖 경험이 학생들에게 주는 영향과 학교 교육과 다른 성격의 독서회 활동을 통한 학생역량의 성장 그리고 전국적인 공감을 얻으면서 확산되었던 광주학생운동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런데 당시 교육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학생들의 입장에서 큰 기대감을 안고 들어간 학교에서 실제로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어떤 순간에 기대가 좌절되었는지, 왜 저항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당시 학교 교육의 현실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학교에서 발생한 충돌과 학생들의 저항을 학생들의 민족의식에 기반한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시선을 넓혀 학생들을 둘러싼 학교 교육 현장의 문제점과 학생들에게 닥치는 현실의 문제점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학생들의 불만은 이후 광주학생운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교 경험에 대한 파악이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입장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본 논문에서는 식민지 시기 학교 교육에 대한 일제 당국과

8) 박철희, 「植民地期 韓國 中等教育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2002 ; 박철희, 「1920-30년대 고등보통학생집단의 사회적 특성에 관한연구」, 『한국교육사학』, 한국교육사학회, 2004

9) 김성민, 『1929 광주학생운동』, 역사공간, 2015

10) 류시현, 「광주학생운동과 전국적 공감의 감성」, 『호남문화연구』 49, 전남대학교 호남학 연구원, 2011,

학생들의 입장 그리고 서로 기대하는 바를 살펴보고, 식민지 교육정책이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되면서 나타나는 상황과 결과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 교육 현장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먼저 시기는 교육의 기회가 열렸던 1920년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광주학생운동의 진원지였던 광주지역을 대상으로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기대와 좌절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II장에서는 1920년대 제2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일제 식민지 교육정책의 목적과 교육정책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또한 식민지시기 중등교육의 위상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일제 당국과 학생들에게 중등교육은 어떤 의미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1920년대 광주지역에 각각의 교육기관이 설립되면서 전남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열렸다는 사실과 학생들이 실제로 학교 교육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IV장에서는 학생들의 불만이 해소되지 못함으로써 학교 교육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 다른 방향의 교육적 경험과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의 역량을 성장시켰으며, 학생들의 불만 축적과 민족의식이 성장하면서 광주학생운동으로 폭발하였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생들의 학교 경험과 불만의 원인 그리고 학생들의 요구 조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고한 자료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신문 기사이며, 그 외 광주학생운동 참가자들의 회고담 등을 함께 참고하였으며 재판기록과 판결문을 통하여 학생들이 불만을 표현한 결과는 어떠한지 참고하였다.

제2장 1920년대 식민지 교육정책과 중등교육의 위상

교육정책은 정치적인 변화와 사회적 상황이 반영되어 결정되며,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영향을 준다. 일제는 조선에서의 정치적 변화에 대응하여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였는데, 1920년대 제2차 조선교육령(1922~1938)은 1919년 3·1운동에 부딪힌 일제가 ‘내지연장주의(内地延長主義)’에 입각한 ‘문화통치’로 정책을 수정하면서 개정된 것이었다.¹¹⁾ 1920년대 교육에는 조선인의 불만을 무마하고 신식교육을 협력자로 포섭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일제의 입장과 3·1운동 이후 신식교육 기관에 대한 조선인의 인식변화가 반영되었다. 일제가 운영하는 학교를 거부하던 조선인들은 3·1운동 과정에서 신식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역할을 목격하면서 학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적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¹²⁾ 조선인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신식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사회적 지위 상승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면서 신식 학교에 취학하기 위한 ‘향학열’이 높아지게 되었다.¹³⁾

1920년대 개정된 교육정책 중 어떤 부분이 학생들의 기대감을 높일 수 있었는지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조선교육령 중 교육강령에 관한 조항에서는 교육의 대상과 일제가 의도한 교육의 목적을 볼 수 있다. 다음 <표 1>은 제1·2차 조선교육령 중 교육강령에 해당하는 조항을 비교한 것이다.

<표 1> 제1·2차 조선교육령 1조~3조 비교

	제1차 조선교육령	제2차 조선교육령
1조	조선에 대한 조선인의 교육은 본령에 의함.	조선에 대한 교육은 본령에 의함.
2조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기초하여 총량한 국민을 육성시키는 것을 본의로 함.	국어를 상용하는 자의 보통교육은 소학교령, 중학교령 및 고등여학교령에 의함.
3조	교육은 시세와 민도에 적합하게 함.	국어를 상용치 아니하는 자의 보통교육을 하는 학교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 고등보통학교로 함.

자료 :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官報』, ‘朝鮮教育令’ 1911.9.1, 1922.2.6

11) 홍문중, 『조선에서의 일본 식민지 교육정책 1910~1945』, 학지사, 2003, 197쪽

12) 오성철, 『식민지 초등 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 31쪽

13) 박철희, 「植民地期 韓國 中等教育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2002, 23쪽

제1차 조선교육령(1911-1922)에서는 ‘조선에 대한 조선인의 교육은 본령에 의함(제1조)’¹⁴⁾ 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제1차 조선교육령이 적용되는 대상이 조선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기초하여 충량한 국민을 육성시키는 것을 본의로 함(제2조)’¹⁵⁾ 이라고 규정하여 조선인을 충량한 국민으로 육성시키는 것이 교육정책의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하였으며, ‘교육은 시세와 민도에 적합하게 함(제3조)’¹⁶⁾ 이라고 규정하여 조선인을 대상으로 차별적인 교육정책을 실시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차 조선교육령에 기반을 둔 1910년대 교육은 조선인에게 명백하게 차별적이었다. 그런데 제2차 조선교육령은 3·1운동 이후 ‘조선을 내지의 연장으로 인정해서 조선을 동화할 필요’¹⁷⁾ 가 제기되면서 ‘내지연장주의’에 따라서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선에서의 교육을 일본 본국과 같은 제도로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따라서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조선에 대한 교육은 본령에 의함(제1조)¹⁸⁾’ 이라고 규정하여 적용대상을 조선인은 물론 일본인까지 확대하였고, ‘시세와 민도에 적합하게 함’이라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다만 ‘국어를 상용하는 자의 보통교육은 소학교령, 중학교령 및 고등여학교령에 의함(2조)’, ‘국어를 상용치 아니하는 자에 보통교육을 하는 학교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로 함(3조)’¹⁹⁾ 이라고 규정 하였는데, 여기서 국어는 일본어를 말하는 것이다. 즉 일제는 1910년대와 같이 초등교육의 경우 일본인의 학교는 ‘소학교’로 조선인의 학교는 ‘보통학교’로 하였으며, 중등교육의 경우 일본인의 학교는 ‘중학교 및 고등여학교’로 조선인의 학교는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로 한 것이다. 이렇게 민족을 구분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교육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조선인과 일본인의 공학제(共學制)에 대해서는 공학을 시행하면, 학교가 일본인 위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조선인 지식인들의 반대 의견도 많았다.²⁰⁾ 그러나 교육 재정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조선인의 교육 재정은

14)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官報』, ‘朝鮮教育令’ 1911.9.1

15)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官報』, ‘朝鮮教育令’ 1911.9.1

16)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官報』, ‘朝鮮教育令’ 1911.9.1

17) 『原敬日記』, 第五卷(福村出版社, 1965), 74쪽

; 박철희, 「植民地期 韓國 中等教育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2002, 22쪽 재인용

18)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官報』, ‘朝鮮教育令’, 1922.2.6

19)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官報』, ‘朝鮮教育令’, 1922.2.6

20) 김한중, 「제2차 조선교육령 시기 日鮮共學 정책과 조선인의 반응」, 『역사와 담론』 48, 호서사학회, 260쪽

부·군·도에 설치된 ‘학교비(學校費)’에서 운영되었고²¹⁾, 일본인의 교육 재정은 ‘학교조합(學校組合)’에서 운영되었다.²²⁾ 그런데 학생 1인당 연평균 예산을 보면 학교조합 소속 학생 (일본인)이 학교비 소속 학생 (조선인)의 2배 이상이었다.²³⁾ 결국 표면적으로 조선인과 일본인을 구분하는 것은 피했지만, 교육여건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차별이 여전히 작용하였다.

1920년대 개정된 조선교육령 중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수업 연한의 연장이다. 1910년대에는 각급의 학교별 수업 연한이 짧아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입학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1920년대 수업 연한이 연장되면서 상급학교 입학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지 않아도 조선에서 교육기관의 단계별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²⁴⁾ 다음 <표 2>는 제1·2차 조선교육령에서 초등교육에 관한 조항을 비교한 것이다.

<표 2> 제1·2차 조선교육령 중 보통학교에 관한 규정

	제1차 조선교육령	제2차 조선교육령
교육 목표	제8조 보통학교는 아동에게 국민교육에 기초하여 보통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신체 발달에 유의하고 국어를 가르쳐 덕육을 실시하고, 국민 될 성격을 양성하고 생활에 필수한 보통의 지식기능을 가르침.	제4조 보통학교는 아동의 신체의 발달에 유의하여 덕육을 실시하고, 생활에 필수한 보통의 지식기능을 가르쳐 국민 될 성격을 함양하고 국어를 습득케 함을 목적으로 함.
수업 연한	제9조 보통학교 수업 연한은 4년으로 함. 단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일 년 단축시킬 수 있음.	제5조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함. 단 토지의 사정에 의하여 5년 또는 4년으로 할 수 있음
입학 자격	제10조 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8년 이상으로 함	제5조 1항 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6년 이상의 자로 함

자료 :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官報』, ‘朝鮮教育令’ 1911.9.1, 1922.2.6

21) 朝鮮總督府, 『官報』, ‘學校費令’, 1920.7.29

22) 統監府, 『公報』, 1909.12.27. ; 조미은,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학교와 학교조합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2010, 93쪽에서 재인용

23) 조미은,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학교와 학교조합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2010, 236쪽

24) 박철휘, 앞의 논문, 29쪽

먼저 교육의 목표는 제1·2차 조선교육령 모두 비슷하게 ‘생활에 필수한 보통의 교육’, ‘국어습득’, ‘국민 될 성격의 함양’²⁵⁾ 등으로 하고 있다 (제8조·제4조). 교육의 목적에 있어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 보이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업 연한의 연장이다.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보통교육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함 (토지 정도에 의하여 5년 또는 4년) (제5조)’²⁶⁾ 이라고 규정하여 이전의 학제보다 2년 연장되었고, 입학 연령 또한 8세에서 6세로 바뀌었다.

<표 3>과 <표 4>는 각각 제1·2차 조선교육령 중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에 관한 규정을 비교한 것이다. 인문중등교육 단계에 해당하는 고등보통학교 교육의 목표도 마찬가지로 크게 변화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국어에 숙달케 함을 목적으로 함 (제6조)’²⁷⁾ 이라는 점에서 국어교육이 더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어 즉 일본어 교육을 강조한 것은 동화교육을 더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수업 연한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다는 점이다. 수업 연한의 연장으로 학생들은 조선에서도 일본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인정하는 학력을 취득할 기회가 열렸다.

<표 3> 제 1·2차 조선교육령 중 고등보통학교에 관한 규정

	제1차 조선교육령	제2차 조선교육령
교육 목표	제11조 고등보통학교는 남자에게 고등보통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상식을 기르고 국민 될 성격을 단련하며 생활에 유용한 지식기능을 가르침	제6조 고등보통학교는 남생도의 신체발달에 유의하여 덕육을 기르고 생활에 유용한 보통의 지식기능을 가르쳐 국민 될 성격을 양성하고 국어에 숙달케 함을 목적으로 함.
수업 연한	제12조 고등보통학교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함.	제7조 고등보통학교 수업 연한은 5년으로 함.
입학 자격	제13조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12년 이상이고 수업 연한 4년인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함.	제7조 1항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수업 연한 6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함.

자료 :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官報』, ‘朝鮮教育令’ 1911.9.1, 1922.2.6.

여자고등보통학교에 관한 조항에서도 ‘국어에 숙달케 함을 목적으로 함’이라는

25)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官報』, ‘朝鮮教育令’ 1911.9.1 ;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官報』, ‘朝鮮教育令’, 1922.2.6

26)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官報』, ‘朝鮮教育令’, 1922.2.6

27)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官報』, ‘朝鮮教育令’, 1922.2.6

교육의 목표를 살펴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동화교육이 강조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5년 또는 4년으로 연장되었다.

<표 4> 제1·2차 조선교육령 중 여자고등보통학교에 관한 규정

	제1차 조선교육령	제2차 조선교육령
교육 목표	제15조 여자고등보통학교는 여자에게 고등보통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부덕을 길러 국민 될 성격을 도야하고 생활에 유용한 지식기능을 가르침.	제 8조 여자고등보통학교는 여생도의 신체의 발달 또는 부덕의 함양에 유의하여 덕육을 기르고 생활에 유용한 보통의 지식기능을 가르쳐 국민 될 성격을 양성하고 국어에 숙달케 함을 목적으로 함
수업 연한	제16조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함.	제9조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5년 또는 4년으로 함 단 토지의 정도에 의하여 3년으로 할 수 있음.
입학 자격	제17조 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나이 12세 이상이고 수업연한 4년인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함.	제9조 1항 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수업 연한 6년 이상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함

자료 :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官報』, ‘朝鮮教育令’ 1911.9.1 , 1922.2.6

제1차 조선교육령에서는 교육을 크게 ‘보통교육, 실업교육 및 전문교육(제4조)’으로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전문학교 등을 두었다. 또한 사범교육 기관은 따로 두지 않은 채 관립 고등보통학교와 관립 여자고등보통학교에 사범과를 두고 교원을 양성하였다(제14조·제19조).²⁸⁾ 그런데 1920년대 보통학교의 증설로 많은 교원을 양성해야 할 필요가 생기면서,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사범교육 기관으로서 사범학교를 따로 두고 보통학교 교원을 양성하였다. 또한 제2차 조선교육령에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대학교육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²⁹⁾ 이렇게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교육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면서 조선에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그리고 고등교육으로 이어지는 교육체계가 갖추어졌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지 않아도 조선인 학생들이 조선에서 단계별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열렸다.

제2차 조선교육령으로 규정된 중등교육 기관 중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 일본인 대상의 중학교와 고등여학교는 상급학교 진학을 목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인문중등교육 기관이었다. 특히 이제 조선에서 대학교육 단계가 가능해졌

28)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官報』, ‘朝鮮教育令’, 1911.9.1

29)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官報』, ‘朝鮮教育令’, 1922.26

기 때문에 대학교육의 입학 자격이 되었던 인문중등교육의 중요성도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상급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고등보통학교는 1910년대 실업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일본인 중학교와 유사한 교육과정으로 개편되었다. 다음 <표 5>는 고등보통학교 규정에서 볼 수 있는 고등보통학교의 교과목과 수업시수이다.

<표 5> 고등보통학교 교과과정 및 수업시수

	修身	國語及漢文	朝鮮語及漢文	外國語	歷史	地理	數學	博物	物理及化學	法制及經濟	實業	圖畫	唱歌	體操	계
第1學年	1	8	3	6	3	4	2					1	1	3	32
第2學年	1	8	3	7	3	4	2					1		3	32
第3學年	1	6	2	7	3	5	2	2				1		3	32
第4學年	1	5	2	5	3	4	2	4			2	1		3	32
第5學年	1	5	2	5	3	4		4	2	2	1			3	32

자료 :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官報』, ‘高等普通學校規程’, 1922.2.20

고등보통학교의 교과목은 수신·국어·조선어 및 한문·외국어·역사·지리·수학·박물·물리 및 화학·법제 및 경제·실업·도화·창가·체조로 하였으며 외국어는 영어와 독어 또는 불어로 하였다.³⁰⁾ 특히 1910년대와 다르게 상급학교로의 진학이 가능해지면서 입시 과목인 국어와 영어, 수학 등의 수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발생하였고, 특히 외국어 교육이 강화되어 이전의 교과과정과 다르게 매 학년 5시간 이상 실시되었다.³¹⁾ 조선어 및 한문도 필수과목이기는 하였으나 상급학교 입학시험 과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에서는 천대 되었으며 수업시수도 축소되었다.³²⁾ 한편 일제가 정책적으로 중시하였던 교과목은 동화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30)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官報』, ‘高等普通學校規程’, 1922.2.20

31) 박철희, 앞의 논문, 155쪽

32) 이만규, 『(다시 읽는)조선 교육사』, 살림터, 2010, 570쪽

있는 국어·수신·역사·지리 과목이었으며, 특히 이러한 과목은 공립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서도 일본인 교사가 담당하도록 하였다.³³⁾

2차 조선교육령과 고등보통학교 규정으로 고등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이 연장되고 인문중등학교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개편은 실업 중심 교육에 대한 조선인의 불만을 무마하고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1920년대 양적으로 팽창하는 보통학교에 비하여 인문중등교육 기관은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다음 <표 6> 각 연도 별 관·공립 보통학교와 공립 고등보통학교 그리고 공립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수를 비교한 표이다.

<표 6>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학교 수 비교

연도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1920	561	5	3
1921	678	7	3
1922	811	12	3
1923	959	12	3
1924	1,090	14	3
1925	1,189	15	3
1926	1,260	15	4
1927	1,339	15	6
1928	1,425	15	6
1929	1,502	15	6

출전 : 오성철, 『식민지 초등 교육의 형성』, 2000, 119쪽 ; 박철휘, 「植民地期 韓國 中等教育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2002, 32쪽

보통학교의 수에 비하여 고등보통학교의 수는 늘어나지 않았다. 이는 일제 당국의 ‘우민화’ 방침이 여전히 유지되었던 것으로 인문중등교육의 기회를 소수의 학생에게만 제공하기 위해 고등보통학교 확대 요구를 억제하였기 때문이다.³⁴⁾ 일제 당국은 조선인의 고등보통학교 증설 요구를 억제하고,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실업학교를 확대 보급하기도 하였다.³⁵⁾ 총독부는 각 도에 1개의 고등보통학교를 설치하겠다고 하였지만, 이는 조선인의 고등보통학교 증설 요구를 제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었다. 특히 조선인의 중학 설립 운동에 편승하여 적은 비용으로 관·공립학교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편입시키기도 하였으며, 사립 고

33) 박철휘, 앞의 논문, 83쪽

34) 오성철, 앞의 책, 126~127쪽

35) 안홍선, 『식민지 중등교육체제 형성과 실업교육』, 교육과학사, 2017, 17~21쪽

등보통학교의 설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립 고등보통학교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립 고등보통학교 설립 비용을 절약하고 이를 일본인을 위한 학교를 설립 하는데 투자하기도 하였다.³⁶⁾ 이처럼 학교의 수가 제대로 증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인 학생들에게는 제한적으로 인문중등교육의 기회가 주어졌고, 학생들은 중등교육의 기회를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했다.

36) 박철휘, 앞의 논문, 33~36쪽

제3장 광주고보 학생들의 근대교육에 대한 기대

제1절 광주지역의 중등교육 기관 확충

제2차 조선교육령이 ‘내지연장주의’에 기반을 두고 개정되면서 조선에서의 교육이 일본 본국과 같은 학제로 규정되었다. 이는 제도상으로 보았을 때 1910년대에 비하여 차별이 한층 완화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일제는 ‘국어를 상용하는 자’와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를 기준으로 일본인과 조선인의 학교를 구분하여 운영하였으며, 조선인이 입학할 수 있었던 고등보통학교의 증설을 제한하였다. 이로 인하여 조선인 학생들이 초등교육과정을 마친 후 중등교육의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았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 1920년대 교육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광주지역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전남지방은 부농층의 계층 상승 욕구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컸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조건이 되었던 교육에 대한 욕구가 강했던 지역이었다.³⁷⁾ 1920년대 초 광주는 인구가 3만 미만인 소읍이었으며, 대부분이 농토로 이루어져 있었고 주민 절반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도시라기보다는 농촌의 모습이었지만 학생들이 조용하게 공부하기에는 적합하였다.³⁸⁾ 또한 광주는 철도가 연결되어 교통의 중심지로 발달하기도 하였고 전남도청의 소재지로서 중등교육 기관이 설립될 수 있는 조건을 잘 갖추고 있었다.³⁹⁾

제2차 조선교육령이 시행되면서 광주의 교육기관에도 변화가 생겼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광주지역의 중등학교 중 인문중등학교로는 광주고등보통학교와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일본인 학교로 광주공립중학교와 광주공립고등여학교가 설립되었다는 점이다.

광주고등보통학교(이하 ‘광주고보’로 줄임)는 1919년 7월 김형옥(金衡玉)을 중심으로 하여 전라남도 지역 유력자들이 자금을 모으기로 하고 설립기성회를 결성하여 1920년 4월 6일 조선총독부의 인가(認可)를 받았다.⁴⁰⁾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37) 이기훈, 「민족독립운동」,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지역 사회운동 연구』, 광주광역시:전라남도, 2015, 63쪽

38) 光州第一高等學校同窓會, 『光州高普, 西中, 一高 六十年史 1920~1985』, 1986, 79쪽

39) 김성민, 『1929 광주학생운동』, 역사공간, 2013, 130쪽

40) “高普設置認可”, 『東亞日報』, 1920.04.14.

받은 광주고보는 이후 학생 100여 명을 모집·선발한 후 5월 1일 임시교사 광산관(光山館)에서 사립 고등보통학교로 개교하였다. 임시교사였던 광산관에서 모든 학생의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시설상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흥학관(興學館)도 함께 사용하였다.⁴¹⁾ 이러한 사립 광주고보의 설립은 3·1운동 이후 학교 설립 운동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교사 신축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학교 설립 인가를 받을 때 자금을 대주기로 약속했던 이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자금 확보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총독부가 교사 신축을 지원해주는 대신 광주고보의 교장을 일본인 쿠리노(栗野清之承)로 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받아들여지게 되었다.⁴²⁾ 결국 광주고보는 조선총독부의 지원을 받아 광주군 광주면 누문리에 1,300평의 기지를 매수하고 교사 신축공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⁴³⁾ 한편 이 무렵 조선총독부는 보통학교의 삼면일교제(三面一校制) 완성과 고등보통학교 증설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우선 예산에 맞추어 1922년에 4개의 고보를 경성, 해주, 광주, 경남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⁴⁴⁾ 이렇게 자금 확보 문제와 총독부의 관립 고등보통학교 증설정책에 따라 사립이었던 광주고보는 1922년에 관립학교로 변경되었으며, 1925년부터는 공립으로 개편되었다.⁴⁵⁾ 당시 고등보통학교는 도 지방비 혹은 학교비(學校費)의 비용으로 설립하거나 사인(私人)의 비용으로 설립할 수 있었으며, 도 지방비 혹은 학교비의 부담으로써 설립하는 것을 공립 고등보통학교로 하고 사인의 비용으로써 설립하는 것을 사립 고등보통학교로 하였다.⁴⁶⁾ 사립 광주고보가 공립으로 개편된 사실을 일제의 압력에 의하여 일본인이 운영하는 학교로 변하였다고 보고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으나, 당시 관·공립 학교의 교육여건이나 졸업생의 취업 또는 상급학교 진학 등에 더 유리한 조건⁴⁷⁾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광주지역 사람들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의지와 교육열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광주중학교는 일본인 학생들이 다녔던 인문중등학교였다. 1922년 총독부에서 호남에 관립중학교를 설립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후 광주·목포·전주·군산 등

41) 光州第一高等學校同窓會, 『光州高普, 西中, 一高 六十年史 1920~1985』, 1986, 68쪽

42) 光州第一高等學校同窓會, 『光州高普, 西中, 一高 六十年史 1920~1985』, 1986, 70쪽

43) “光州高普校新建築”, 『東亞日報』, 1921.09.07

44) “四高普校新設”, 『東亞日報』, 1922.01.15

45) 김성민, 앞의 책, 130쪽

46)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官報』, ‘高等普通學校規程’, 1922.02.20

47) 강명숙, 『사립학교의 기원』, 학이시습, 2015, 149쪽

에서 위치 경쟁이 벌어졌다.⁴⁸⁾ 위치 경쟁 결과 총독부는 1923년 광주에 관립중학교를 설립할 것을 결정하였다.⁴⁹⁾ 광주중학교에서는 학생 100명을 선발한 후 입학식을 시행하면서 개교하였는데, 소학교의 교실을 우선 이용하였으며, 이후 16,500평의 부지에 학교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⁵⁰⁾

광주에 여학생들 대상으로 한 인문중등학교는 1927년 지방주민의 요청에 따라서 설립되었던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가 있었다.⁵¹⁾ 또한 보통학교의 증설로 교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교원 양성을 위한 사범학교 증설정책이 실시되면서, 1923년 광주에 전남도립사범학교가 설립되었다.⁵²⁾ 광주에 설립된 중등 실업학교로는 1909년 6월 10일 개교한 광주농림학교가 있었다. 광주농림학교는 광주에서 제일 먼저 설립된 중등교육 기관이었으며 개교했을 당시에는 1년제 속성과인 농업과와 보통과를 두었다가 1911년 9월 광주공립농업학교(이하 ‘광주농교’로 줄임)로 개칭한 후 수업 연한을 2년 연장하였다.⁵³⁾ 그런데 광주농교학생들이 상급학교인 수원농림전문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입학원서를 제출하였다가 광주농교가 3년제 학교이기 때문에 여전히 입학 자격이 없다는 결과를 듣게 되자 학생들은 학교에 학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며 1923년 동맹휴학을 하였다.⁵⁴⁾ 학생들의 학년 연장 운동 결과 1924년 수업 연한이 5년으로 연장되었고, 1926년부터는 중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20년대 광주지역에는 인문중등학교로 조선인 학교인 광주고보와 광주여고보가 일본인 학교인 광주중학교와 광주고등여학교가 설립·운영되었으며, 실업계 학교로 광주공립농업학교와 사범학교인 전남공립사범학교가 설립·운영되었다. 이처럼 광주에 교육기관이 잘 정비되어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광주를 ‘교육도시’라고 칭할 정도였다.⁵⁵⁾ 이제 초등교육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자신들의 목표에 따라서 보통학교 이후의 중등교육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한 지역에 조선인과 일본인 중등교육 기관이 공존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전남 각지에서 조선인 학생은 물론 일본인 학생들이 중등교육을 받기 위해

48) “中學位置光州內定”, 『東亞日報』, 1922.08.27

49) “中學校設立決定”, 『朝鮮日報』, 1923.01.03.

50) “光州中學開校期”, 『東亞日報』 1923.04.29. ; 『東亞日報』, “光州中學地均工事”, 1923.09.01.

51)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광주학생독립운동90년사』,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53쪽

52)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위의 책, 52쪽

53)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위의 책, 50쪽

54) “光州農校의 昇格運動”, 『朝鮮日報』, 1923.03.12.

55) 車相瓚, 「全羅南道踏查記」, 『開闢』 제63호, 1925.11.01

광주로 모여들었다. 광주 근교인 나주·담양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은 기차를 통해 광주로 통학하였기 때문에 통학하는 길에서 일본인 학생과 조선인 학생들이 서로 자주 마주쳤다.⁵⁶⁾ 특히 광주고보 학생들과 광주중학교 학생들은 서로 상급학교 진학을 두고 서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견제하기도 했다.

56) 김성민, 앞의 책, 131쪽

제2절 광주고보의 권위적 학교 운영과 학생들의 개선 요구

광주지역에 각각의 중등교육 기관이 확충되면서 초등교육을 마친 학생들은 자신의 목표에 맞추어 상급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광주고보의 설립으로 전남지역에서 인문계 중등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은 상급학교 진학을 목표로 5년간의 고등보통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교육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진 유능한 학생들이 전남 각지에서 모여들었기 때문에 광주고보의 입시경쟁은 매우 치열하였다. 광주고보가 처음 설립되었던 1920년 당시에는 아직 학교 건물 자체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학생 지원자 수도 적었지만, 두 번째 신입생을 받았던 1921년부터는 지원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⁵⁷⁾ 관립 광주고보로 변경되었던 1922년에는 광주고보의 신입생 모집정원을 100명으로 하였는데 입학지원자 수는 295명에 이르러⁵⁸⁾ 고등보통학교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의 열망과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벌였던 치열한 경쟁 그리고 그들 중 우수한 학생들이 광주고보에 선발되어 입학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어렵게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만큼 스스로에 대한 긍지가 매우 높았으며 학교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높았다.⁵⁹⁾ 사회적으로도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을 지식계급으로 바라보고 학생들이 고향에 돌아가 지식의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였다.⁶⁰⁾ 특히 광주에서는 광주고보 학생들이 장차 지도자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나이가 많은 노인들도 광주고보 학생들을 대할 때 높임말을 쓰며 대우를 해주었다.⁶¹⁾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치열한 경쟁을 거쳤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더 컸다. 또한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는 것 자체가 상급학교 진학까지 염두하고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양질의 수업과 좋은 학교시설 등을 기대하였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잘 이끌어갈 능력을 갖춘 교사의 존재는 학생들의 기대와 만족도를 높여주는 조건이 되었을 것이다.

57) 光州第一高等學校同窓會, 『光州高普, 西中, 一高 六十年史 1920~1985』, 1986, 73쪽

58) “高普志願者激增”, 『東亞日報』, 1922.04.17

59) 박철희, 「1920-30년대 고등보통학생집단의 사회적 특성에 관한연구」, 『한국교육사학』 26, no2, 한국교육사학회, 109쪽

60) 八峰, 「鄉黨의 知識階級 中學生」, 『開關』 제58호, 1925.04.01

61) 光州第一高等學校同窓會, 『光州高普, 西中, 一高 六十年史 1920~1985』, 1986, 80쪽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하여 고등보통학교에서는 실제로 입시 과목인 국어와 영어, 수학 등 교과목에 치중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구분하여 반을 나누고 학습과목에 차이를 두고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⁶²⁾ 광주고보에서는 진학반과 취업반을 갑을 조로 나누고 진학반에서는 의과와 법과 진학에 치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⁶³⁾ 상급학교 진학은 학생들의 목표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 당국으로서도 중요한 문제였다. 또한 상급학교 진학에 성공한 졸업생은 후배들을 위하여 상급학교 입시전략을 설명하는 글을 작성하여 교우회지에 공유하기도 하였다.⁶⁴⁾ 그만큼 상급학교 진학은 당시 고보생들에게 중요한 목표였으나 사실 상급학교 진학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었다. 당시 광주고보와 입학시험에서 경쟁하였던 광주중학교와 비교하면 두 학교 모두 10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였지만 5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학생 수가 광주고보는 29명, 광주중학교는 61명이었다. 또한 그 졸업생 중 광주중학교의 상급학교 지원자는 54명, 취직 7명인데 비하여 광주고보의 상급학교 지원자는 19명 취직 10명으로 광주고보에서 상급학교 지원자가 훨씬 더 적어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조선인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기가 매우 힘들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졸업생의 수만 보아도 광주고보의 졸업생 수가 더 적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학업 도중 퇴학을 당하거나 자퇴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5년의 고보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에도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취직을 선택한 학생들도 많았다.⁶⁵⁾

광주고보 학생들은 학업에 열중하면서도 학교생활 도중 그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현하며 문제 해결을 요구하였다. 학생들의 학교 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는 교사들과의 관계이다. 당시 학생들은 3·1운동을 경험하면서 인권 의식이 성장하였고, 교육 현장에서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거나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⁶⁶⁾ 교사는 교육적인 태도로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당시 최고의 사범교육 기관

62) 박철희, 「植民地期 韓國 中等教育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2002, 155~159쪽

63) 光州第一高等學校同窓會, 『光州高普, 西中, 一高 六十年史 1920~1985』, 1986, 471쪽

64) 光州第一高等學校同窓會, 『光州高普, 西中, 一高 六十年史 1920~1985』, 1986, 149쪽

65) “가튼 백명입학에 고보는 이십구명 졸업” 『東亞日報』, 1931.03.03

66) 정연태, 『식민지 민족차별의 일상사』, 푸른역사, 191쪽

인 경성사범학교에서도 이상적인 교사상으로 페스탈로치(Pestalozzi, Johann Heinrich)를 강조하였다. 페스탈로치의 교육관은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적으로 교육에 임하는 성직자적 교사상으로 이해되었다. 즉 헌신과 사랑으로 교육에 임하는 교사를 이상적인 교사상으로 설정했던 것이다.⁶⁷⁾ 그렇다면 과연 당시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의 관계는 어떠하였을지 광주고보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923년 1월 24일 광주고보의 3학년 학생 중 한 명이 그 전날 결석하여 배우지 못한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 영어 교사(大阪竹治)를 직접 찾아가 질문하였다. 물론 정식 수업 시간은 아니었지만, 학생이 배우고자 할 때 답을 해주는 것이 교육자의 의무일 것이다. 그러나 그 영어 교사는 학생의 질문에 지금은 가르쳐줄 수 없으며, 수업 시간 외에 질문하지 말라며 학생을 꾸짖고 돌려보냈다. 그러자 질문을 한 학생은 감정이 상해 불만을 토로하고 돌아섰고, 영어 교사는 그 학생을 따라와 무차별하게 폭행하였다. 학생이 질문을 하러 갔을 때 “처음에는 뜻밖게 매우 친절하게 함으로 그 선생의 언동이 평소와 달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 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영어 교사의 행동이 평소에도 불친절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다음날 오전 일본어 교사(早川黙翁)가 또 다른 학생을 불러 영어 교사에게 학생이 맞는 것을 보았는지 물어보았고, 그 학생이 보지 못하였다고 답하자 거짓말로 선생을 속인다고 말하며 학생을 폭행하면서 문제가 더욱 커졌다. 교사의 폭력적인 태도는 올바른 훈육이 아니었다. 학생들은 이러한 교사의 폭행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분개하였고, 학교에 진정서를 제출한 3학년 학생들은 동맹휴학(이하 ‘맹휴’로 줄임)에 들어갔다. 3학년의 맹휴 소식을 들은 1·2학년 학생들도 26일부터 맹휴에 동참하여 27일부터 광주고보 전교생의 맹휴가 시작되었다.⁶⁸⁾ 이후 학부형회의를 통해 원만하게 조정된 후 2월 2일부터 다시 등교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듯 하였으나, 교장(栗野清之承)이 약속을 어기고 다섯 명의 학생들을 징학시키면서 학생들의 재맹휴를 야기하였다.⁶⁹⁾

이 사건은 광주고보에서 일어난 첫 번째 맹휴였으며 그 원인은 교사의 비인격적이고 비교육적인 태도였다. 학생들은 교사의 폭력인 대우로부터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항의하였다. 또한 폭행당한 학생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고보 학

67) 오성철, 앞의 책, 253쪽

68) “光州高普의 同盟休校”, 『朝鮮日報』, 1923.01.30

69) “光州校의 再盟休”, 『朝鮮日報』, 1923.02.13

생이 모두 공감하며 분노하였던, 학생 모두의 문제였다. 그러나 교장이 맹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학생들을 처벌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며 더욱 큰 불만을 느꼈다.

교장은 자신이 담당하는 학교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지도하고 보호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주고보의 교장은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조차 수용하지 않고, 학생들을 처벌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비교육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1924년 광주고보 야구부와 일본인 야구팀의 야구 시합 중 충돌이 일어나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격투로 이어졌던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학교 학생들을 보호해야 마땅할 교장이 직접 광주고보의 야구부 중 최동문, 지창수, 윤처현, 김재영 등을 광주경찰서로 인치(引致)하도록 하면서 결국 학생들의 분노를 샀다.⁷⁰⁾ 광주고보의 400여 명의 학생은 이렇게 무책임한 교장 밑에서 공부할 수 없었다. 교장은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해주기보다는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전부 무기정학을 내리겠다고 강경한 대응을 하면서 학생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결국 학생들은 총독부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교장이 바뀔 때까지 맹휴하기로 하였다.⁷¹⁾ 한편 학생들의 무기정학 처분은 학부모 입장에서도 큰 문제였다. 학부모들은 교장에게 부당한 무기정학 처분 취소와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교장의 퇴직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도민대회를 열고 직접 총독부에 진정할 것이라는 결의를 전하였다. 하지만 교장은 “무기정학 처분은 학교 체면 때문에 취소할 수 없으며 도민대회를 열고 안 여는 것은 당신들의 마음대로 할 일ियो.”라고 대답하며 회피하였다. 결국 학부모들은 도민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도민대회를 준비하였으나 광주경찰서에서 도민대회 취지서를 출판법 위반이며 압수하여 개최하지 못하였다.⁷²⁾ 학교 당국은 주동 학생 십여 명을 퇴학시켰고 학생들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학교 당국에 대항하기로 하였다.⁷³⁾ 이 맹휴는 9월에 수습되었지만, 광주고보 4학년 학생이었던 고헌우·국채덕·최현주·지창수 등이 결국 퇴학을 당하였다.⁷⁴⁾

이 사건의 발단은 학교의 교육 현장이 아닌 야구 시합 중 충돌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일본인과 야구 경기에서 충돌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민족적 감정을

70) “野球場에서 大風波”, 『朝鮮日報』, 1924.06.20

71) “事件은 擴大”, 『朝鮮日報』, 1924.06.23

72) “光州高普의 學父兄 재차회의를 열터이라고”, 『朝鮮日報』, 1924.06.30

73) “道民大會趣旨書를 光州警察署가 押收”, 『東亞日報』, 1924.07.20

74) 양동주, 『抗日學生史』, 청담출판사, 1956, 26쪽

자극하였다는 점이 컸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불만을 더욱 키웠던 것은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고 도리어 경찰에 넘겨버리는 교장의 태도였다. 한편 이 사건에서 학부모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와 이 문제를 도민대회로 이어나가려고 하는 모습에서 학교 문제가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였다는 의미가 있다.

학생들에게 가장 강력한 처벌은 퇴학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퇴학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당시 학생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상황에 대해 『東亞日報』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학교가 재판소가 아니고, 교사가 판사가 아니니 교육이라는 원래 목적으로 볼지라도 학생이 잘못하는 일이 잇스면 이것을 선도하기에 노력할 것이요, 그 학생의 잘못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도 도덕상으로는 법률상으로 용서하지 못할 전연(全然) 장래가 업는 비행이라고 할지라도 사년(四年) 간이나 교양 하야오던 피교육자이니 다른 방법으로 이를 선도하는 것이 당연할 터인데 …… 동정을 표하고 주시하야 교육적으로 인도할 방침을 강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한가.⁷⁵⁾

만일 교육의 근본적 의의가 인격의 향상과 능력의 발전에 있다하면 먼저 교육자 자신부터 완전한 인격과 충분한 능력을 가져야 할 것은 물론이다 …… 자기가 친히 훈도하여 오던 생도를 사법경찰의 손에 이(移)하야 그 시비선악을 교정하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육의 과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⁷⁶⁾

이렇게 당시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이끌기보다는 정확이나 퇴학이라는 가혹한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심지어 경찰에게 넘겨 처벌받게 하는 경우가 많아 비판을 받았다. 또한 교장과 교사들의 권위적인 태도에 대한 불만은 광주고보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며, 일본인 교사와 조선인 학생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도 아니었다. 사립학교 서양인 교사들이 독단적이고 전제적인 태도로 학생들을 다루면서 학생을 감금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고⁷⁷⁾, 일본 본국에서 전

75) “誤謬된 教育方針”, 『東亞日報』, 1925.09.17

76) “盟休事件과 教育者의 責任”, 『東亞日報』, 1927.08.28

학을 온 한 일본인 학생은 조선에 있는 학교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차별적이고, 불친절하며 인격을 무시한다.’ 고 불만을 터트리며 맹휴를 주도하기도 하였다.⁷⁷⁾ 이러한 사례에서도 교장과 교사의 교육적이지 못한 태도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충족되지 못한 채 학생들의 불만이 축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 기대하는 것 중 하나는 좋은 교육시설과 학습 환경의 조성이다. 좋은 학교시설과 학습에 대한 지원은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학교 교육의 성과를 높여줄 수 있다. 만약 다른 학교에 비하여 본인들의 학교 시설이 좋지 않을 때 학생들은 자신들도 더 나은 환경에서 학습하기를 원하게 된다. 광주고보 학생들에게는 같은 인문중등학교이며 상급학교 입학시험으로 경쟁하고 있는 광주중학교가 그 비교의 대상이었다. 입시경쟁을 벌여야 하는 광주중학교에 비해 광주고보의 학교시설이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은 학생들에게 불리하다는 인식과 불만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⁷⁹⁾ 평소 광주중학교 시설과 비교하여 광주고보의 시설이 차이가 있는 것에 불만을 느끼고 있던 상태에서 수학여행을 다녀오던 중 평양고보의 시설을 보고 광주고보 학생들은 더욱 불만을 느끼게 되었다.⁸⁰⁾ 이러한 학교시설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광주고보 학생들은 세 번째 맹휴에 들어갔다(1927년 5월). 학생들은 ‘한·일 교육제도의 차이가 너무 심하며, 광주중학교와 본교의 물리·화학 교실을 비교하였을 때 차이가 크니 신축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다. 당시 교장(白井規一)이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듯 하였으나 교장의 대답은 기만적인 것이었다.⁸¹⁾ 이후에 발생한 맹휴에서도 학교시설 개선의 요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생들의 요구가 제대로 수용되지 않으면서 학교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계속 이어져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주고보의 학생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높은 상황에서 상급학교 진학을 목표로 학업에 열중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고자 학교생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77) “好壽敦女高盟休”, 『朝鮮日報』, 1927.12.11. ; “生徒六十名 全部를 停學”, 『東亞日報』, 1928.11.24

78) “學生의 人格을 全的으로 無視”, 『東亞日報』, 1931.12.13

79) 金柄奎(8회)의 회고, 光州第一高等學校同窓會, 『光州高普, 西中, 一高 六十年史 1920~1985』, 1986, 473쪽

80) 김성민, 앞의 책, 178~179쪽

81) 양동주, 앞의 책, 32쪽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그들의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등교와 수업을 거부하는 동맹휴학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들의 문제 개선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학교 당국과 학생들의 원활하지 못한 소통은 학생들의 불만을 계속 쌓이게 하였다. 학교 당국과 학생들 사이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기대는 점차 좌절되었고 이는 학생들의 이후 학습 방향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제4장 광주고보 학생들의 식민교육에 대한 반발

제1절 광주지역의 사회운동과 학교 밖 학습

학교에서 근대지식을 배움으로써 자신의 지적 욕구를 충족하고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학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학생들의 기대감은 점차 좌절되어갔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광주고보에 입학하였지만, 학교에서 부당하고 비교육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쌓여갔던 것이다. 학생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학습하기 위하여 학교에 불만을 표현하고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학교는 학생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고 무책임하게 대응하였다. 학생들이 학교에 불만을 느끼는 원인과 요구하는 바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맹휴의 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맹휴는 식민지 시기 학생들이 불만을 표현하고 문제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학생들이 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다. 맹휴의 결과로 학교 당국에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교육환경을 개선해주었다면 학생들의 불만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겠지만, 맹휴에 대응하는 학교의 태도를 보면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듯 하면서도 기만적인 태도로 넘어가고, 주동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학교 교육의 문제를 개선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자 하였던 학생들의 요구가 해결되지 못하면서 학교에 대한 기대를 잃어갔다. 또한 192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학생들의 요구 조건이 점차 학교 내부 문제를 벗어나 정치적인 성격으로 변화되어갔다. 이는 학생들이 식민지 상황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학교 수업에 대한 기대와 흥미를 점차 잃어갔다. 특히 동화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과목인 국어, 역사, 지리 등 수업에서 학생들의 불만이 가장 두드러졌다. 일제는 지리와 역사 교과목을 통해서 조선인 학생들에게 일제의 위대함과 ‘한일합병’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왜곡된 내용을 가르쳤다. 학생들은 이러한 왜곡된 내용을 알아차리면서 수업 내용에 불만을 느끼게 되었다.⁸²⁾ 이러한 동화교육에 실망한 학생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수업 내용이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학생들은 술렁이긴 하였지만 우선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광주고보의 한 학생은 지리 수업 시간에 ‘조선을 일본의

82) 김성민, 앞의 책, 46쪽

한 지방으로 다루며 수업하는 것에 불만을 느꼈으나 그 수업을 듣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견디었다.’⁸³⁾ 고 하였다. 이 사례의 경우 적극적으로 항의하지는 않았으나 왜곡된 내용을 흘려들으면서 수업을 거부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일어(日語)를 왜 국어(國語)라고 써야 하는지에 대한 불만을 느끼기도 하였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일어(日語)를 국어(國語)라고 쓸 것을 지도하였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공책에 國語(국어)라 쓰지 않고 月語(월어)라고 쓰거나 國의 약자인 口자를 쓰고 속에 점을 찍어서 日語라고 읽으며 저항하였다.⁸⁴⁾ 학생들의 이러한 저항은 사소하고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주도적으로 나서서 저항하였던 학생들 외에도 다수의 학생이 학교와 식민교육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다.

당시 고등보통학교 학생 중에는 나이가 많은 학생도 많았고 이들은 고등보통학교 입학 이전에 한학(漢學) 교육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왜곡된 수업 내용을 바로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았다.⁸⁵⁾ 이들은 특히 나이 어린 학생들이 왜곡된 수업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까 걱정하기도 하였는데, 역사 수업 도중 교사가 ‘일본의 개국신인 천조대신은 조선의 개국신인 단군성조와 형제지간이며 더군다나 천조대신이 누이가 된다.’라는 발언을 하여 강한 불만을 느꼈다.⁸⁶⁾ 이때도 역시 학생들은 우선은 참고 넘겼으나 왜곡된 수업 내용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또한 광주고보 교사 중 송홍(宋鴻)은 한문과 조선어를 담당하는 조선인 교사였는데, 수업 시간 중 학생들에게 한국사를 가르쳐주면서 학생들의 민족의식 성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⁸⁷⁾

학교교육 과정 중 왜곡된 수업 내용에 대응하는 학생들의 반응과 대응 방안은 학교 수업에 기대하지 않고, 학생들 스스로 학습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로 결성하게 된 것이 1926년의 성진회였다. 성진회는 광주고보 학생들과 광주농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사회주의 서적을 읽으면서 토론을 하는 등 활동을 하였다. 성진회 결성 계기에 대해서는 ‘식민교육에 대항하기 위하여’, ‘제3차 조선공산당, ML 당 Y부 강해석의 지도를 받아’⁸⁸⁾ 등의 이유가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학생들이 더는 학교교육에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

83) 高在騏(10회)의 회고, 光州第一高等學校同窓會, 『光州高普, 西中, 一高 六十年史 1920~1985』, 1986, 130쪽

84) 양동주, 앞의 책, 92쪽

85) 光州第一高等學校同窓會, 『光州高普, 西中, 一高 六十年史 1920~1985』, 1986, 78쪽

86) 최성원,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주역들』, 고려원, 2001, 134~136쪽

87) 光州第一高等學校同窓會, 『光州高普, 西中, 一高 六十年史 1920~1985』, 1986, 80쪽

88) 이기홍 유고, 안종철 정리, 『광주학생 독립운동은 전국학생독립운동이었다』, 향지사, 1997, 178쪽

여 학습활동을 하고자 하였음에 주목할 수 있다. 성진회 결성 이후 학생들은 매월 두 차례 토요일에 모여 중요한 주제로 토론을 하고, 사회주의 서적을 돌려 읽은 후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다. 그러나 성진회는 비밀유지에 문제가 생기고 구성원 중 곧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1927년 2월 해체되었다.⁸⁹⁾

학생들의 활동에 영향을 준 것 중 하나는 시대적 분위기의 변화였다. 1920년대 후반 광주지역 청년운동 조직과 학생들이 연결되었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다. 광주 지역에서는 1926년 이후 제3차 조선공산당 주도 세력들이 청년운동을 이끌어나갔으며, 이들은 학생층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1927년 초에는 조선공산당의 청년조직인 고려공산청년회(이하 ‘고려공청’으로 줄임) 전남 책임자 김재명을 비롯하여 강영석·장석천·강해석·국채진 등이 광주청년동맹과 전남청년연맹을 주도하고 있었다.⁹⁰⁾ 이러한 청년운동 조직과 학생들의 연결은 학생들의 활동에 변화를 주었고, 1927년 이후 학생들이 요구하는 바도 점차 정치적인 성격을 보이면서 식민지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움직임 보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행하였던 것이 ‘이경채 격문 사건’이었다. 광주고보 5학년에 재학하면서 사회과학을 연구하였던 이경채는, 1928년 6월 8일 치안유지법 위반 및 출판법 위반 용의자로 구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광주고보 시라이(白井)교장은 19일 이경채의 아버지를 불러 이경채에 대하여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경채의 퇴학 조치에 광주고보 5학년 학생들은 교장에게 ‘이경채 권고 퇴학의 이유를 명시하여 달라’고 항의하였다. 학생들이 요구했던 것은 이경채의 퇴학 이유를 밝혀달라는 것이었지만 학교는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였다. 교장은 학생들의 동요를 제지하기 위하여 학부형회를 소집하였는데 이 자리에 학생들이 들어와 진정서를 배포하였다. 다음날 학교에서는 진정서를 배포하였던 11명의 학생에게 근신 처분을 내렸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가혹한 처분을 내리는 학교에 분노하며 6월 26일 광주고보 학생들은 학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맹휴에 들어갔다. 학교에서는 27명을 퇴학시키고 281명을 무기정학 시키는 등 가혹한 처분을 이어갔다. 학생들은 ‘교우회의 획득에 관한 건, 학교 당국의 교육방침에 관한 건, 한국인 본위의 교육 실현화에 관한 건, 물리·화학 교실 신축, 4·5학년 급장 11명

89) 최성원, 앞의 책, 153~155쪽

90) 이기훈, 「민족독립운동」,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지역 사회운동 연구』, 광주광역시:전라남도, 2015, 164~165쪽

에게 명한 근신을 취소할 것, 이경채의 무죄가 판명될 때 즉시 복교시킬 것'을 요구하였다.⁹¹⁾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이전부터 요구했던 내용이 해결되지 못한 채 계속 쌓여오고 있었으며, “한국인 본위의 교육 실현”이라는 내용에서 정치적인 요구도 보여 복합적인 모습을 띠었다. 즉 광주고보의 네 번째 망휴였던 1928년의 망휴는 이전까지 축적되었던 불만이 복합적으로 터져 발생한 것이었으며, 이전의 망휴와 비교하였을 때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더욱 발전하여 항일적인 성격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망휴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퇴학을 당하면서 큰 타격을 입자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저항을 이어갔다. 당시 교사들은 망휴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의 자퇴를 권고하기 위하여 각 지방을 돌아다녔다. 학생들은 교사들의 행동을 조금이라도 막아보기 위해 축구 경기를 할 때 일부러 학교 건물을 향해 공을 차 건물을 파손시켰다. 이러한 행동은 건물을 파손시키면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 교사들이 출장 여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⁹²⁾ 또한 학생들은 걸핏하면 학생들을 처벌하고 경찰들도 학생들을 잡아가는 상황에 부딪히면서, 학교 교육상황을 개선하고 더욱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학내 문제에 그치지 않고 차원을 높여 식민지 상황 자체에 저항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망휴를 통한 학생들의 문제 해결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는 물론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하여 민족적 항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1928년 7월 10일 망휴중앙분부를 설치하고 더욱 조직력을 갖추었다.⁹³⁾

광주지역의 청년운동 조직은 1928년 학생지도부 Y를 조직하고 장석천을 중심으로 박오봉, 국채진, 강석원, 나승규 등이 조직을 재정비해 나갔으며 일본으로 유학 갔던 장재성을 소환하여 학생운동을 지도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청년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던 선배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학교별 독서 모임을 더 조직적이고 통일적인 모임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1929년 독서회 중앙지도부를 두기로 계획하였다. 광주고보 학생들은 독서회 중앙분부가 결성된 이후 상급생의 지시에 따라서 토론할 책을 선정하고 매월 두 차례 모여 자신이 맡은 부분을 발표하는 식의

91) 양동주, 앞의 책, 33~38쪽

92) 翰承駿(9회)의 회고, 光州第一高等學校同窓會, 『光州高普, 西中, 一高 六十年史 1920~1985』, 1986, 127쪽

93) 최성원, 앞의 책, 167~168쪽

모임을 가져왔다. 학생들은 자신이 맡은 부분을 발표한 후 현실과 결부시켜 비판과 토론을 하였고 결론이 나지 않을 때는 다음 모임까지 공부한 후 결론을 내렸다.⁹⁴⁾ 이러한 독서회 경험은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실망으로 기대감이 좌절되어가는 과정에서 사회과학에 대한 또 다른 학습 욕구를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독서회는 상급생의 지도 아래 진행되었다는 특징이 있었는데, 하급생들은 이러한 독서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엘리트 무리에 끼게 되었다는 자부심과 함께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⁹⁵⁾ 하거나, 학교 교과목에 흥미를 잃은 상태에서 상급생들이 건네주는 사회주의 서적을 읽으면서 비밀스러운 독서에 ‘짜릿한 느낌’⁹⁶⁾을 받았다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의 독서회 경험은 학교 수업에서 느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 대한 불만이 해결되지 않고 축적되어가는 반면 독서회를 통한 사회과학의 학습은 학생들에게 특별한 경험이었다. 학생들은 학교 수업에서 충족하지 못했던 학습 욕구를 독서회를 통하여 충족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식민지 현실에서 벗어나야 자신들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94) 이기홍 유고 안종철 정리, 『광주학생 독립운동은 전국학생독립운동이었다』, 향지사, 1997, 179~180

95) 翰承駿(9회)의 회고, 光州第一高等學校同窓會, 『光州高普, 西中, 一高 六十年史 1920~1985』, 1986, 127~128쪽

96) 高在騏 (10회)의 회고, 光州第一高等學校同窓會, 『光州高普, 西中, 一高 六十年史 1920-1985』, 1986, 129~130쪽

제2절 광주학생운동의 발발과 전국적 연대

학교가 학생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서 학생들은 점차 학교 밖의 학습경험에서 현실의 문제를 깨달아갔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비교육적인 상황과 동화교육에 점차 실망을 느끼고 있던 학생들의 감정을 더욱 상하게 한 것은 학교 밖에서 경험하는 충돌이었다. 학교 밖에서 경험하는 사건들은 학교 안에서 느끼는 것보다 학생들의 민족적 감정을 더욱 건들었다. 특히 당시 광주지역에는 각각의 교육기관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광주 근교 지역에서 기차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등·하교 길에서 일본인 학생과의 충돌은 조선인 학생들의 민족적 감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일본인 학생들이 지배민족의 입장에서 조선인을 멸시하는 발언을 하면, 스스로 엘리트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조선인 학생들은 이를 더욱 크게 받아들이고 분노하였다. 1929년 6월 운암역에서 발생한 충돌과 10월 나주역에서 발생한 충돌은 통학길에 조선인 학생들의 민족적 감정을 더욱 악화시켰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운암역에서의 충돌은 당시 기차로 통학하던 학생들이 운암역을 지나갈 때 어떤 가난해 보이는 집의 기둥에 개고기 뒷다리가 걸려있는 것을 보고 일본인 학생들이 ‘조선인들이 즐겨먹는 개고기’, ‘조선인은 야만인’이라고 하는 말로 인하여 발생했던 사건이었다. 조선인 학생들도 개고기를 먹는 것을 좋게 보지는 않았으나 일본인 학생들에게 야만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특히 당시 기차 통학생 중 나주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조선인 학생들과 일본인 학생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부모님들의 관계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나주 군에는 동양척식회사의 이민자들이 많았는데, 나주 군 내에 약 3,788명의 일본인이 3,732만 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1인당 1만 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반면에 조선인들은 1인당 겨우 300평을 소유하고 있어 일본인들과 비교하였을 때 경제적인 면에서 차이가 컸다. 조선인 학생들은 조선인이 가난한 이유가 일본인 때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일본인 학생의 말에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⁹⁷⁾ 운암역 충돌사건은 큰 싸움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으나 학생들의 분노는 점차 쌓여갔다.

나주역에서 발생한 충돌은 나주역에서 일본인 학생 후쿠다(福田)와 조선인 학생

97) 최성원, 『광주학생운동의 주역들』, 2001 고려원, 28~34

박준채 등의 충돌로 시작된 것으로 광주학생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사건으로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이다. 나주역 충돌에서 학생들이 가장 분노하였던 것은 일본인 학생의 ‘센징노 쿠세니(조선놈 주제에)’ 발언이었다.⁹⁸⁾ 조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들은 학생들은 크게 분노하였고 이는 이전 사건들로 인하여 불만과 분노를 쌓아 오던 조선인 학생들을 폭발하게 했다. 학생들의 불만과 분노를 더욱 격화시킨 것은 일본인 경찰들과 교사 등 주변 사람들의 대응이었다. 순사 모리다(森田)는 충돌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박준채를 폭행하였고, 이 소식을 듣고 나주경찰서장에 항의하러 간 학부모는 도리어 뺨을 맞는 일까지 발생하였다.⁹⁹⁾ 또한 다음날에도 이어진 학생들의 충돌을 발견한 차장이 학생들의 승차권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같은 장소에 있었던 광주일보 기자가 후쿠다만을 위로하고 박준채 등 조선인 학생들에게는 폭언하였으며, 다른 일본인 승객들에게도 욕을 들으면서 조선인 학생들의 감정이 더욱 상하게 되었다.¹⁰⁰⁾

나주역 충돌사건은 광주역에서 충돌로 이어졌다. 학생들의 충돌 소식을 들은 광주중학교와 광주고보 교사들도 학생들의 충돌에 대응하기 위하여 광주역으로 모였다. 그런데 충돌에 대응하는 태도에 큰 차이가 있었다. 광주중학교 교사였던 요다·요시다 등은 학생들의 싸움을 오히려 부추기며 선동까지 하였으나, 광주고보 교사 후쿠다는 광주중학교 교사 요시다에게 싸움을 말려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광주중학교 교사들은 경찰의 힘을 빌려 광주고보 학생들을 퇴각시키려고 하였으나, 광주고보 교사는 쌍방이 동시에 퇴각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결국 이날의 충돌은 동시에 해산하는 것으로 끝이 났고 해산 후 광주고보의 교사들은 학생들을 인솔하여 돌아갔다.¹⁰¹⁾ 학교로 돌아온 이후 광주고보 학생들은 학교 수업 중 ‘선생들이 중학교와 같이 생도들 싸움에 응원해 줄 터이면 수업하겠다.’라며 말하기도 하였고, 학생들을 훈계하는 교사들에게는 ‘중학교 선생들은 학생들을 응원하는데 우리 학교 선생들은 말리기만 한다.’고 항의하였다.¹⁰²⁾ 충돌 과정에서 광주고보 학생들은 일본인 학생들의 편만 드는 경찰들과 광주중학교 교사와 비교하였을 때 자신들의 편을 적극적으로 들어주지 않는 광주고보의 교사들을 보면서 더욱 분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98) 최성원, 위의 책, 38쪽

99) 최성원, 위의 책, 40쪽

100) 양동주, 『抗日學生史』, 청담출판사, 1956, 101쪽

101) 양동주, 위의 책, 102~104쪽

102) 양동주, 위의 책, 104~105쪽

학생들의 불만은 상급생들의 지도로 학생 개개인에 그치지 않고 조직력을 갖추게 되었다. 상급생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는데, 때때로 강당에 하급생들을 불러 모아 하급생들에게 ‘조국의 독립을 전취(戰取) 하여야 되겠다.’라는 등의 연설을 하면서 하급생들을 지도하고 이끌어 나갔다.¹⁰³⁾ 광주역에서 광주고보와 광주중학교 학생들의 충돌이 발생한 이후에도 학생들은 장재성의 지도 아래 강당에 모여 앞으로의 대처 방안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장재성은 ‘우리의 적은 일본인 중학생이 아니라 일제 식민지 정책과 노예교육’이라고 학생들을 설득하였고 그러한 토론 결과 학생들의 시위가 시작되었다.¹⁰⁴⁾ 학생들의 시위는 지배민족으로서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던 일본인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러한 상황은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더욱 강하게 처벌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결국 시위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하였고 이는 2차 시위의 계기가 되었다.¹⁰⁵⁾

학생들의 시위가 확산되어 갈 기미가 보이자 일제 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민족적 대결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학생들의 단순한 충돌로 사건을 축소 시켰다.¹⁰⁶⁾ 일제 당국은 이렇게 민족적 감정을 일으키지 않도록 경계하였지만,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의 충돌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별대우에 대한 소식은 점차 퍼져나가 조선인들의 분노를 샀다. 한편 나주역 사건과 비슷한 사건은 다른 지역에서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중재에 나서야 할 교원들이 조선인을 홍보고, 조선인의 결점을 지적하는 등 학생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 문제였다.¹⁰⁷⁾ 이러한 대립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점은 광주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배경이었다. 광주에서 시작된 항일운동은 광주와 가까운 나주와 목포로 퍼져나갔고 12월에 이르면 서울 등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다.¹⁰⁸⁾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광주학생운동은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가 좌절되고 그에 따른 불만이 폭발하였음을 의미한다. 결국 1920년대 교육은 서로의 기대와 목표가 부합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일본인과의 차별 경험은 학생들의 식민지민의 현실적인 한계

103) 양동주, 위의 책, 98쪽

104) 최성원, 앞의 책, 57~58쪽

105) 김성민, 앞의 책, 201쪽

106) “光州中學生과 農業校生又衝突”, 『朝鮮日報』, 1929.11.06

107) “光州의 學生衝突事件”, 『朝鮮日報』, 1929.11.05

108) 최성원, 앞의 책, 180쪽

를 느끼게 한 것이다. 학교 내 교사들의 비교육적인 태도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의 분위기, 학생들의 지적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못하였던 비정상적인 상황들은 학생들이 기대하였던 학교의 모습이 아니었다. 여기에 더하여 식민지 상황 자체에서 경험하는 민족차별 문제는 학생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제5장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1920년대 제2차 조선교육령의 개정과 고등보통학교 규정의 개정 등을 기반으로 조선에서 시행되었던 교육정책과 그러한 교육정책이 적용되어 광주지역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확충되는 과정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였던 사례들과 학교 밖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살펴보았으며, 권위적이고 비교육적인 학교 교육의 결과로 학생들의 불만과 분노가 축적되어 폭발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먼저 ‘내지연장주의’에 기초한 제2차 조선교육령 개정으로 조선에서도 일본 본국과 같은 학제의 교육기관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학생들이 조선에서도 일본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인정하는 학력을 취득할 기회가 되었다. 특히 고등보통학교 규정으로 고등보통학교의 교과목이 실업 중심에서 인문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상급학교 진학을 목표로 한 학생들이 고등보통학교에서 공부하기를 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총독부는 인문학교인 고등보통학교 증설을 제한하고 이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실업학교를 확대하였다. 따라서 보통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해야 했으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고보에 입학한 학생들은 스스로 엘리트라는 생각을 하며 자부심을 느꼈다. 사회적으로도 그들이 향후 지도자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높이 대우해주었다. 한편 제2차 조선교육령은 조선인은 물론 일본인 학생들에게도 적용되었는데, 조선인과 일본인의 학교를 구분하는 기준을 일본어 상용 여부로 하면서 표면적인 차별은 피했지만, 결과적으로 학교 운영에 차별이 존재하였다.

교육정책이 개편되면서 광주지역의 교육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광주에 광주농교, 광주고보, 광주여고보, 사범학교 등이 설립되면서 광주는 ‘교육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교육기관이 활성화되었다. 광주에 중등교육 기관이 잘 정비되자 전남 각지의 우수한 학생들은 중등교육의 기회를 획득하기 위하여 광주로 모여들었다. 당시 광주고보는 광주지역 유지들이 힘을 합쳐 고보설립 운동을 전개한 결과 사립으로 설립되었으나, 학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자금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고 총독부의 1도 1고보 정책과 맞물리면서 결국 공립으로 개편되었다. 사립이었던 광주고보가 공립으로 개편된 것은 광주고보의 교육여건이나 상급학교 진학 등에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이었으며, 이러한 모습은 당시 광주지역 사람들

이 광주에 중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의지와 교육열이 매우 높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광주지역에 일본인 학교로 설립되었던 광주중학교는 같은 인문학교로서 상급학교 입시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이자 지배 민족과 피지배 민족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광주고보와 자주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근대지식의 습득과 학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면서 입학하였다. 학교 수업에서는 상급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입시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과목은 소홀히 다루는 경향도 나타났다. 또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생과 취직을 원하는 학생들의 반을 갑을 조로 구분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교에서 경험하는 많은 상황들은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하였다. 특히 교장과 교사들의 권위적이고 비교육적인 태도에 학생들은 불만을 느끼고 개선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학교는 학교에 불만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다루지 않고 무자비하게 처벌하거나 퇴학 조치를 하는 등 가혹하게 다루었다. 이렇게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조차 들어주지 않고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학교 당국의 대처로 학생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광주중학교와 입시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교육시설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광주고보 학생들의 입장에서 불리하게 느껴졌고 이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당시 광주고보의 교장은 학생들이 요구한 물리·화학 교실의 신축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후에도 지키지 않아 학생들의 불만을 키웠다.

학생들은 동화교육과 깊은 관련이 있는 수업에서 불만을 느꼈다. 교사들이 왜곡된 내용으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은 그것을 간파하고 불만을 느꼈으나, 우선은 참고 수업 시간에 그 내용을 흘려보내는 것으로 견디고 있었다. 주도적으로 나서서 항의하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학생이 동화교육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은 학생들의 불만이 폭발할 위험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에 실망해가던 학생들에게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왔던 것은 사회주의에 대한 학습이었다. 당시 청년단체 활동 중 하나로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학생조직을 구성하도록 지도하였고, 청년단체와의 연결은 학생들이 조직을 갖추고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경채 격문사건’이 발단이 되어 발생하였던 광주고보의 네 번째 맹휴는 이전 맹휴에서 요구하였던 사항에 정치적인 요구까지 더해져 복합적인 모습을 보였고, 학교 당국에 조직적으로 대항하기 위해 결성하였던 맹휴중앙본부는 학생들의 조직

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성진회 이후 결성되었던 독서회중앙본부와 독서회 활동도 이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조직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학생들의 요구와 저항이 단순히 학교 문제에 그치지 않고 차원을 높여 식민지 상황 자체에 저항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였다.

학교를 벗어나 더욱 크게 느껴지는 민족 차별적인 경험 또한 학생들이 현실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들은 무엇보다도 조선인을 비하하는 말을 들었을 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으며, 광주중학교 학생들과 충돌 과정에서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경찰과 교사들의 태도는 이를 더욱 키웠다. 학생들의 불만이 개개인에 그치지 않았고 조직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에는 상급생들의 역할이 컸으며, 결국 광주학생운동으로 확대되어갈 수 있었다. 광주학생운동은 광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는데, 전국적으로 광주 학생들이 경험했던 것과 그들이 느꼈던 감정을 함께 느끼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1920년대 교육정책과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활동과 경험을 살펴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식민지시기 학생들의 학교 경험에 관한 사례들을 확인하고, 당시 학생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반응과 활동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920년대는 제2차 조선교육령의 개정과 조선인의 교육열로 학교 교육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했던 시기였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하는 상황이었고 학교에서는 충분히 교육적인 태도를 갖추고 학생들을 다루어야 했지만, 당시 교육 현장은 그렇지 못하였다. 당시 교육 현장은 권위적이고 비교육적인 상황이 계속되었으며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조차 들어주지 않아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욕구는 충족될 수 없었고 결국 학교 당국과 충돌이 반복되면서 학생들의 기대는 점차 실망으로 바뀌어 갔다. 여기에 더하여 식민지 상황 자체에서 경험하는 민족차별의 경험은 학생들의 분노를 폭발하게 했다. 결국 당시 교육정책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였고, 학생들의 기대를 좌절하게 만들면서 실패하였다.

참고문헌

1. 자료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官報』

『東亞日報』

『朝鮮日報』

『開闢』

光州第一高等學校同窓會, 1986, 『光州高普, 西中, 一高 六十年史 1920-1985』

2. 단행본

강명숙, 『사립학교의 기원』, 학이시습, 2015

김기석, 『교육역사사회학』, 교육과학사, 1999

김성민, 『1929 광주학생운동』, 역사공간, 2013

김태웅, 『신식 소학교의 탄생과 학생의 삶』, 서해문집, 2017

김호일, 『한국근대 학생운동사』, 선인, 2005

고마고메 다케시, 『식민지제국 일본의 문화통합』, 역사비평사, 2008

노성태·신봉수, 『사진과 인물로 보는 광주학생독립운동』, 광주광역시문화원연합회, 2014

류시현, 『동경삼재』 산처럼, 2016

박찬승 등, 『광주학생독립운동과 나주』, 경인문화사, 2001

송찬섭, 『서당, 전통과 근대의 갈림길에서』, 서해문집, 2018

안홍선, 『식민지 중등교육체제 형성과 실업교육』, 교육과학사, 2017

양동주, 『抗日學生史』, 청담출판사, 1956

오성철,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

_____, 『근대 동아시아의 학생문화』, 서해문집, 2018

오욱환, 『한국사회의 교육열 : 기원과 심화』, 교육과학사, 2000

이기훈, 『청년아 청년아 우리 청년아』, 돌베개, 2014

- 이기홍 유고·안종철 정리,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전국학생독립운동이었다』, 향지사, 1997
- 이만규, 『(다시 읽는) 조선 교육사』, 살림터, 2010
- 장규식, 『1920년대 학생운동』, 한국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2009
- 정연태, 『식민지 민족차별의 일상사』, 푸른역사, 2021
- 최성원,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주역들』, 고려원, 2001

3. 연구논문

- 김기주, 「광주학생운동 이전 동맹휴학의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 김한중, 「제2차 조선교육령 시기 日鮮共學 정책과 조선인의 반응」, 『역사와 담론』 48, 호서사학회, 2007
- 류시현, 「광주학생운동과 전국적 공감의 감성」, 『호남문화연구』 49,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1
- 박철희, 「1920-30년대 고등보통학생집단의 사회적 특성에 관한연구」, 『한국교육사학』, 한국교육사학회, 2004
- 안홍선, 「식민지시기 사범교육의 경험과 기억 : 경성사범학교 졸업생들의 회고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29, 한국교육사학회, 2007
- 한규무, 「대한제국기~일제강점기 雲人 宋鴻의 계몽운동과 민족교육」, 『역사학연구』 51, 호남사학회, 2013

4. 학위논문

- 나카바야시 히로카즈,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과 동화주의의 변천』, 연세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 박철희, 『식민지기 한국 중등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 조미은,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학교와 학교조합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